

싱가포르 가족 여행기



글. 박진용 BBS 라디오기술부

몇 달 전 아내가 회사 워크숍에서 1등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그 경품은 싱가포르 호텔 2박 숙박권이였다. 이것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숙박권이였다. 올해 안에 우리 가족은 싱가포르로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행 2달 전부터 싱가포르 숙박,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현재 30개월이 된 우리 아이는 작년 제주도 여행 시 비행기 안에서 부둥켜안긴 채 이코노미의 압박에 오며 가며 왕복 2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울어대었다. 기내에서 우리 부부는 진땀을 빼며 여행에서 돌아온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이번 여행은 숙박을 좀 세이브하였으니, 우리 부부와 아이 모두 편하게 다녀오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4박 6일간의 싱가포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는 여정은 인천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약 7시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3시간 대기,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 창이공항까지 1시간이었다. 경유는 조금 힘들었지만 비행기에서 full flat을 경험하고 경유하는 동안 공항라운지를 이용하였기에 피로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밤 12시 넘어 인천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에 도착하였을 때는 오전 11시가 좀 넘는 시간이었다. 창이공항 근처에는 '주얼 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공항과 연결된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인공 가든 숲과 거대한 인공폭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인공폭포는 5층 이상의 높이로 폭포가 물 중간을 관통하는데 규모가 어마하다. 이곳은 올해 4월에 오픈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싱가포르 공항 입국 시에 방문한 터라 캐리어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느라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다. 보통 여행객들은 여행을 마치고 출국 시에 공항에서 이른 체크인을 하여 짐을 부치고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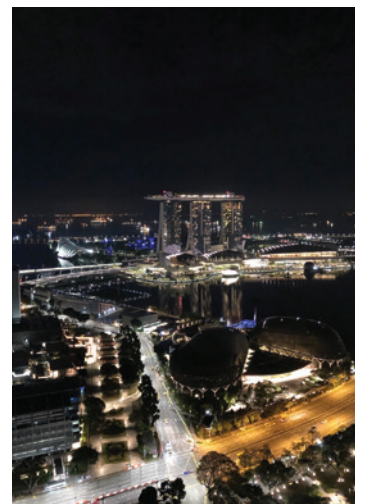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교통수단은 MRT(지하철), 버스, 택시, Grab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 우리는 주로 Grab을 이용하였다. Grab은 동남아시아에서 Uber라 불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Grab 앱으로 호출 시 빠른 시간에 오고 택시에 비해 저렴하고 요금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공항에서 시티까지 Grab으로 보통 20 싱가포르 달



주얼 창이 인공폭포

러(18,000원) 정도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요금이다. 공항버스의 경우 9 싱가포르 달러이고 택시의 경우 시티까지 25~30 싱가포르 달러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자.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의 경우는 Grab 요금이 갑자기 (2배 이상) 올라가거나 잡히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Grab보다 택시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른 체크인이 가능해서 12시에 와도 바로 호텔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호텔직원은 이른 체크인의 경우에는 하버뷰는 힘들고 뷰가 별로인 시티뷰가 가능하다고 하며, 15시에 체크인을 하여야만 뷰가 좋은 하버뷰로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운 날씨에 아이는 짜증을 부리고 나도 몸이 피곤하여 쉬고 싶어 그냥 하버뷰를 포기하고 시티뷰로 선택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곳에서 4박이나 하는데 좋은 뷰에서 묵고 싶다고 하여 점심을 먹고 15시에 호텔로 돌아오기로 하고 시내로 나섰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다행히 우리는 좋은 방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방은 50층에 있는 54호였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정방향으로 보이는 방이었다. 우리가 묵은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는 53, 54, 55호로 되어 있는 라인의 방이 하버뷰가 제일 좋다고 한다. 그 뷰를 보는 순간 이곳에 온 여정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호텔 뷰

저녁에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말라িয়언상을 보러 말라िय언 파크로 가기로 하였다. 이곳은 엄마 말라িয়언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인공호수 건너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볼 수 있어서 핫한 포토 존이다. 말라িয়언상이 내뿜는 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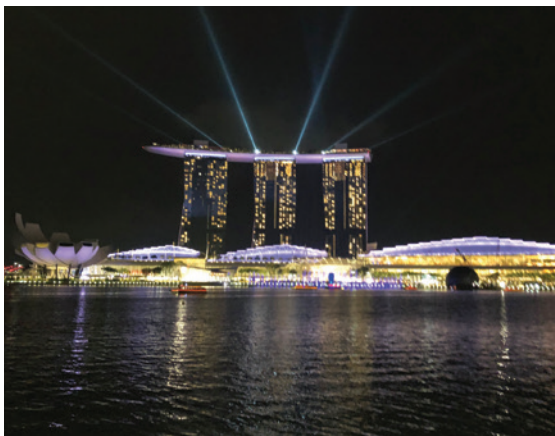
받아 마시는 사진을 찍느라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입을 벌리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 가족 또한 모두 입을 벌리고 사진을 찍어댔지만 인파에 밀려 아쉽게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지 못하였다.



엄마 멀리언상

것인데 물론 유람선 이용료는 따로 내야 한다. 슈퍼트리쇼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조형물에서 불빛을 발생시켜서 쇼를 진행한다. 슈퍼트리쇼를 보는 방법은 돛자리나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누워서 관람하는 것이다.

저녁이 되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앞에서 매일 2회씩 쇼를 진행한다. 이 쇼는 무료이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 그루브에서는 저녁 7시 45분, 8시 45분 2회 슈퍼트리쇼를 진행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서는 저녁 8시, 9시 스펙트라쇼를 2회 진행한다. 스펙트라쇼의 경우는 앞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인공호수의 분수 쇼를 보는 것이다. 스펙트라쇼를 보는 다른 방법은 클락키에서 유람선을 타고 인공호수 가운데 정박하여 보는



스펙트라쇼



슈퍼트리쇼



우리는 스펙트라쇼를 보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랩 앱을 구동시켰지만 잡히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그랩을 호출하거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의 20분 넘게 기다려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보통 싱가포르의 시티 중심에서 1~2km 내에 호텔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택시나 Grab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성인이라면 구글맵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가족은 아이가 있고 더운 날씨에 걷기 힘들어 1km 이상 되는 거리는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였다.

둘째 날은 싱가포르 시티에서 다소 떨어진 동물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리버사파리, 나이트사파리, 싱가포르 동물원이 모여 있다. 세 군데를 다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이트사파리의 경우 저녁에만 관람할 수 있는 코스여서 더운 날씨 탓에 우리는 리버사파리를 한군데만 선택하여 구경하기로 하였다. 리버사파리는 40종 6,000마리의 생물과 멸종 위기 동물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멸종동물인 매너티와 판다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아마존 리버 퀘스트라고 있는데 후룸 라이드와 같은 놀이기구 배를 타고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키 106cm 이하는 탑승이 불가하므로 아이가 있는 우리는 탑승하지 못하였다. 넉넉히 2시간 정도면 관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운 낮 시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판다



매너티



리버사파리 입구



뉴턴 호커 센터



칠리크랩, 시리얼 새우

리버사파리 구경 후 우리는 싱가포르 칠리크랩의 가성비가 좋다는 뉴턴 호커 센터로 향하였다.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칠리크랩과 시리얼새우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유명한 곳이었다. 60 싱가포르 달러에 칠리크랩, 시리얼 새우 및 볶음밥 세트를 먹을 수 있다. 보통 다

른 식당에서 칠리 크랩의 가격만 적어도 100~150 싱가포르 달러가 나온다. 더운 날씨 탓인지 생각보다 칠리크랩의 맛이 별로였다. 푸드코트처럼 오픈된 야외공간에서 먹어야 해서 너무 더웠고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고 곳곳에 비둘기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곳이다.

다음날 오전에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 플라워 돔에 가 보기로 했다. 이곳은 티켓을 끊어야 하고 미리 한국에서 바우처를 사 갈 경우 현지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플라워 돔은 실내에 꽃들을 잘 가꾸어 놓은 커다란 정원이다.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은 실내에 정글을 옮겨놓은 듯 한 곳인데 입구에 있는 인공폭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



플라워 돔

포가 인상적이다. 두 곳 모두 실내 돔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환경에서 돌아 볼 수 있다. 2시간 정도면 관람이 가능하다.

오후에는 센토사섬에 가보기로 했다. 센토사섬에 가는 방법은 택시, 그랩, 하버프론트역에서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것이다.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은 그랩이나 택시이다. 우리는 그랩을 호출하여 센토사섬에 들어갔는데 운임요금에 센토사섬 차량 입장료 2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되었다. 섬을 나올 때 모노레일을 탈 경우 따로 요금이 없다.

센토사섬에 도착하여 실로소 비치, 팔라완 비치를 구경하였다. 팔라완 비치의 일몰은 아름다웠다. 이곳 바다는 물이 별로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센토사섬은 해수욕보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및 루지랑 메가짚 등 각종 액티비티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일정상 가지 못했고 비치를 돌아보고 윈스 오브 타임이라는 공연을 보기로 했다. 19시 40분, 20시 40분 일 2회 공연이 약 20분간 진행된다. 이 공연은 티켓을 구매하여야 한다.

센토사섬에도 37m 높이의 멀라이언 상이 있다. 센토사섬 멀라이언 내부에는 전망대가 있어 섬과 싱가포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레이저쇼도 펼쳐져 인기 있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아빠 멀라이언상은 센토사섬과 브라니섬을 잇는 개발 계획 과정에서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여 다시는 못 볼 생각을 하니 아쉬웠다.



팔라완 비치



윈스 오브 타임쇼



아빠 멀리안상



루지체험장



클락키 야경

싱가포르는 서울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대 나무를 도시 곳곳에 심어놓아서 동남아 휴양지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잘 꾸며놓은 도시 같았다. 또한,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치안이 동남아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아서 가족여행 하기에 좋은 여행지였다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의 무더운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다만 물가가 다른 동남아에 비해 비싼 편이고 날씨가 더운 탓에 무리한 일정으로 여행을 한다면 다소 고생스러울 수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 저녁 위주로 코스를 짤다면 좋은 여행지가 될 것이다. ☺

